

發 刊 辭

이번에 발간되는 法學 제33권 제 1 호는 행술 李泰魯 교수님의 華甲을 기리는 紀念號이면서, “韓國의 法學教育—反省과 改革” 심포지움의 特輯號이기도 하다.

행술 李泰魯 교수님은 1964년에 母校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 부임하신 이후 30星霜을 後進養成과 法學研究에 精進하심은 물론 稅務法制의 合理化와 民主化에 헌신하신 보기도문 學者님이시다. 또한 李泰魯 교수님은 고매하신 人格과 원만하신 性品으로 後學·後輩 교수들의 사랑과 존경을 아낌없이 받아온 분이시기도 하다. 우리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가 이번 號의 法學誌를 李교수의 華甲紀念號로 꾸미게 된 것을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李교수님의 만수무강을 비는 바이다.

그리고 特輯 “韓國의 法學教育” 심포지움은 昨年 11월 22일 서울大學校 教授會館에서 全國의 法科大學 學長님들과 法學專攻 總長님들을 모시고 韓國의 法學教育을 회고하고 發展적인 法學教育制度를 창출하기 위한 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法學研究所가 주최한 大討論의 내용을 整理·紹介한 것이다. 이 “韓國의 法學教育” 심포지움을 소개하는 特輯이 우리 나라의 法學教育을 보다 民主적인 것이 되게 하고 또 發展적인 것이 되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望外の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李泰魯 교수님의 生涯와 學問”을 소개·정리해 주신 權光重部長判事, 李哲松·玉武錫·安慶峰教授에게 감사함은 물론 이번 號 法學誌 편집과 교정에 고생이 많았던 陰善澤·趙龍晚 助教들에게도 그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1992년 3월 일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權 寧 星